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1일 주한대사, 국회의원, 외교관 등을 초청하여 각국의 혐오·차별 대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평등법 관련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에서는 위원장, 상임위원, 인권위원,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등이 참여하여 평등법 관련 활동을 포함한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활동을 소개했다. 외부 참가자로는 평등법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상민, 박주민, 장혜영 의원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점을 공유했으며, EU 대표부와 뉴질랜드, 프랑스, 핀란드, 독일,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들의 대사 및 외교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사례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 군 성폭력, 경제 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 노인의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법제도화를 위해서는 평등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월 중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일부 종교계 등 사회적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평등법 발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가짜뉴스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한 공관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인권이 존중되고 포용적인 사회와 정치체계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안과 함께 논의해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역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악을 끼칠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한공관 대사들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필립 터너(Philip Turner)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에서 1993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소수민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사회적 규범도 마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법안의 통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프 르포르(Philippe Lefort)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의 경우, 종교, 나이,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전통이 있고 1971년부터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마이클 대너허(Michael Danagher) 캐나다 대사는 1977년 연방인권법 채택과, 1982년 캐나다헌법 개정으로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너허 대사는 한국사회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법적 권한을 존중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니케쉬 메타(Nikesh Mehta) 영국 부대사는 영국의 평등법 제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종교계나 재계의 반대를 경험했으나 이들의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0년 160개의 법률을 통합한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역동적 사회가 구현될 수 있었다.

존 보거츠(John Bogaerts) 주한 EU 대표부 수석참사관은 EU 회원국들의 혐오·차별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EU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EU는 2000년부터 여러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회원국들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왔으며, 회원국들이 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여러 침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성소수자 전략을 출범시키면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불가리아, 벨기에, 미국, 노르웨이 등 주한 공관 대사 및 각국 참가자들은 각국의 평등법 제정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한공관과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이상민 의원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 구현을 촉구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평등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출처: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결과보고문서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소식

인권위,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 상반기 실무그룹 회의 참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무그룹의 상반기 회의가 6월 2일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어 실무그룹 활동 및 노인인권관련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은 한국, 필리핀, 폴란드, 조지아, 케냐, 페루의 국가인권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GANHRI 제네바 사무소와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실무그룹은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노인인권 관련 국가인권기구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초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최된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인권기구 공동 서한을 송부할 계획이다.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노인인권 이 일관된 방식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함을 인식하고 노인인권에 관한 별도의 국제협약의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은 국제협약의 성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할 계획이다.

실무그룹은 세계노인인권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GAROP)이 추진 중인 “권리가 있는 노년(AgeWithRights) 캠페인 참여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엔 노인인권협약의 성안을 통해 노인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세계노인인권연합의 회원기구들이 노인인권과 협약 성안에 관한 2분 길이의 영상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SNS 프레임, 해시태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한다. 국가인권기구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까지 각 인권기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노인인권 분석 보고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최기간을 고려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하반기 회의에서 활동사항과 성과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2021년 상반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

3. 국제노동기구(ILO) 소식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최초의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협약 시행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2년이 지난 2021년 6월 25일 협약이 시행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피지, 나미비아, 소말리아, 우루과이 6개국이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비준을 하고 1년 내에 협약의 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은 제206호 권고안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행체계를 제시한다.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국제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다.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가 동 협약을 채택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여성과 취약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협약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6월 21-25일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제190호 협약을 쉽게 설명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캠페인을 통해 각국이 협약을 비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해야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190호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고 고용주, 근로자와 조직과 협력하여 존엄성이 보장되고 안전하면서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국제노동기구는 관계자들이 협약과 권고사항을 홍보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발간할 것이다. 지침은 국내법, 규제, 정책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핵심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806022/lang-en/index.htm?shared_from=shr-tls

4. 유엔난민기구(UNHCR) 소식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유엔난민최고대표 메시지

이틀 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는 전례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 폭력, 박해로 인해 8천2백만 명이 넘는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동안 이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고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분쟁과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종, 국적, 신념이나 기타 다른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대신에 불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희생자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기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난민들은 전쟁, 박해, 불안한 망명생활의 상처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국제적 보호, 안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수용국 사회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 간호사, 구호근로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물자를 나누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난민들이 사회에 포용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의 난민들과 연대를 표현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난민들의 열정, 의지,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유엔난민기구의 동료들은 난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성과를 매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 이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https://www.unhcr.org/news/press/2021/6/60ccb4854/un-high-commissioner-refugees-filippo-grandis-message-world-refugee-day.html>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위원회

일 시	회의 명
2021/8/24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일 시	회의 명
2021/6/29-7/1	GANHRI 연례회의

▲ UN

일 시	회의 명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